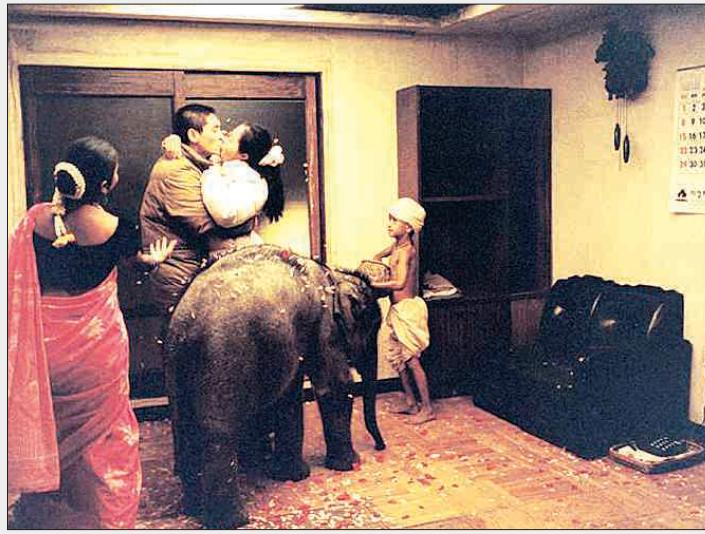


세계 3대 영화제 수상 한국영화 다시 한번 볼까



취학선



오아시스



빈집

칸 국제영화제에서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칸,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극장가에서 상영중인 '밀양'을 포함, '올드보이' '오아시스' 등은 한국영화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려왔다. 지난간 영화를 보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지금은 든든한 조연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배우들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올드보이'의 오달수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명작 '모듬'으로

▲오아시스

2002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이창동)과 신인상(문소리)을 수상한 작품이다. 소설가에서 영화 감독으로 진향한 뒤 '초록 물고기', '박하사탕'을 통해 '이야기꾼'의 면모를 과시했던 이창동 감독의 세 번째 영화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전과자 종두와 뇌성마비장애인 공주의 '독특한' 사랑을 그린 멜로 드라마로 '박하사탕'에 이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설경구와 문소리는 절정의 연기력을 선보였다.

공주가 지하철 역사에서 '내가 만일'을 부르는 장면, 코끼리가 함께 등장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등 판타지 속에 녹아든 사랑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준다.

▲올드보이

'공동경비구역 JSA'로 흥행 홈런을 남겼던 박찬욱 감독에게 날개를 달아준 작품으로 2004년 칸느 영화제에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극찬과 함께 황금종려상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

'올드보이'·'오아시스'·'사마리아' 등 걸작

배우들 과거모습 보는 즐거움도 만끽

을 수상했다.

전작 '복수는 나의 것' 이영애 주연의 '친절한 금자씨'와 함께 이른바 '복수 3부작'으로 불리는 작품이기도 하다. 일본 만화가 원작으로 영문도 모른 채 15년간 사실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남자와 그를 가둔 남자 사이의 대결을 그리고 있으며 영화 마지막의 '완전'이 다소 파격적이다.

개봉 당시 '장도리 신'으로 불렸던 결투신 등 최민식과 유지태의 연기가 돋보이며 강해정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마리아

국내보다 외국 관객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 작품으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다.

원조교제를 하는 여고생과 자신의 딸이 원조교제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복수와 화해를 그린 작품이다. 제목 '사마리아'는 이교도에 의해 더럽혀진 땅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으로부터 천대와 배척을 받은 성서에 나오는 지명이다.

▲빈집

베니스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으로 김기덕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 중 두 개의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석권, 해외 영화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폭력적인 남편에 감금된 무기력한 여자와 전단지

를 돌리며 빈집을 전전하는 청년간의 사랑 이야기로 아무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빈집을 통해 외롭고 단절된 인간 관계를 그리고 있다.

국내 개봉 당시 누드집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승연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으며 세계가 공동주연을 맡았다. 이탈리아에서는 20만명 넘는 수가 관람했지만 국내에서는 관객이 1만명도 채들지 않아 김감독에게 열광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취학선

올해 100번째 영화 '천년학'을 감독했던 임권택 감독에게 칸영화제 감독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이다.

조선 시대 화가 오원 장승업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한 한 화가의 광적인 예술혼을 담고 있다.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와 전국 각지를 돌며 촬영한 아름다운 화면이 인상적이다. 최민식이 주연을 맡았으며 손예진·유호정·김여진 등이 장승업의 연인으로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만능 엔터테이너 탁재훈 '원톱 주연'

주목! 이 영화

'상성-상처 받은 도시'



우정과 배신 '슬픈 홍콩 느와르'

마틴 스콜세시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디파티드'로 리메이크 돼 화제를 모았던 '무간도' 시리즈의 유위강·백조희 감독과 양조위가 다시 호흡을 맞춘 홍콩 느와르.

선우래 사이인 유정희와 아방은 크리스마스날 발생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지만 그날 아방의 연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세월이 흘러 3년 후. 아방은 사립탐정 일을 하며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유정희는 결혼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날 유정희의 아내 숙진의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단순 강도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미집짝은 숙진은 아방에게 사건을 의뢰한다.

아방은 사건을 파헤칠수록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후 인물은 유정희로 유효하는데….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양조위가 유정희 역을 맡았으며 금성무, 서기자 함께 호흡을 맞췄다.

<18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수이자 '상상플러스' 등 TV 예능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탁재훈(사진)이 드디어 '원톱 주연'으로 우뚝섰다.

탁재훈은 최근 멜로 영화 '여린왕자(감독 최종현, 제작 피플엔피쳐스)'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상처를 간직한 음향효과 기술자가 겪는 감동 드라마인 '여린왕자'에서 탁재훈은 주인공 종철 역을 연기한다.

우연한 기회에 종철을 돋기 되는 아나

운서 지망생 선우 안 남녀의 결혼과정을 그린 코믹물, 김수미·유진 주연, 15세 관람가.

운서 지망생 선우 안 남녀의 결혼과정을 그린 코믹물, 김수미·유진 주연, 15세 관람가.

운서 지망생 선우 안 남녀의 결혼과정을 그린 코믹물, 김수미·유진 주연,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	상영극장
상성 : 상처받은 도시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첨단·상무), 프리미스 광주(상무), 하미
데스 워터	롯데시네마(첨단), 무등, 콜롬버스(하남), 하미
팩토리 걸	메가박스
캐리비언의 해적 3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스 광주(상무), 하미, 엔터, 프리미스 제일
밀양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스 제일
전설의 고향	롯데(첨단),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스 광주(상무), 하미
넥스트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스 제일
눈물이 주룩주룩	롯데(첨단), 콜롬버스(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스 제일
못말리는 결혼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스 제일
스파이더맨 3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스 제일

평양대부흥 100주년 / 광주 CBS 46주년기념

크리스천 대성회

광주여! 청년이여! 두 날개로 날아오로라



▶ 평양대부흥 100주년 / 광주 CBS 46주년기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